

2학기 설국버스 국제 18시 배차무산 수요 대비 높은 비용 원인

조병연 기자 choby0309@khu.ac.kr

다음 학기 양 캠퍼스를 오가는 셔틀버스(설국버스) 배차 시간이 결정된 가운데, 국제캠퍼스에서 서울캠퍼스로 가는 18시 편이 결국 무산됐다. 국제캠퍼스 18시 설국버스는 양 캠퍼스 총학이 진행한 수요조사에서 가장 많은 수요가 있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수요 대비 높은 비용을 이유로 해당 시간 버스 운영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총무관리처는 다음 학기 설국버스 시간표를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시간대는 ▲국제캠 출발 07:10, 10:00, 11:55, 13:30, 16:40 ▲서울캠 출발 07:20, 10:00, 13:30, 16:40, 18:00으로 지난 학기와 같았다. 이렇게 확정된 시간대는 수요조사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었다.

양 캠퍼스 총학은 이번 학기 설국버스 운행 시간표 확정을 위해 지난 6월, ‘2024학년도 2학기 설국버스 수요조사’를 진행했다. 탑승 수요가 많았던 18시 국제캠발 버스는 이후 이용자가 주로 서울캠 학생인 점을 고려해 서울캠 총학이 추가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79명의 응답자 중 94.9%가 해당 시간 버스 운행 시 실제 이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하지만 해당 시간대 설국버스는 최종 무산됐다. 국제캠 총무관리처 총무팀 이조원 주임은 “18시 버스 논의는 이뤄졌지만, 증차를 위한 비용 대비 수요자가 없을 것 같아서 무산됐다”고 밝혔다. 국제캠 총학생회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버스 왕복 한 대당 비용은 학기당 2천5백만 원이다. 설국버스 운영 예산은 경로와 무관하게 국제캠 총무관리처가 집행한다.

국제캠 총학은 설국버스 증차 논의와 관련해 “신중한 교내 예산 사용과 학생 복지 차원의 증차 사이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관련 수요조사를 진행한 것도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함이었다”고 했다.

수요조사 결과가 다음 학기에 반영되지 않은 점에 이용자는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18시 설국버스 수요조사에 참여한 김예원(문화엔터테인먼트학 2022) 씨는 “배차 시간이 적을뿐더러 캠퍼스 별로 배차 시간이 다른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양 캠퍼스를 오가며 다양한 수업을 듣고 싶은 학생들에게 설국버스의 배차가 적어 불필요하게 공간이 발생하는 일이 최소화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옥상 출입문 옆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

(사진=최고훈 기자)

국제 학생회관 옥상 무단출입 감소

최고훈 기자 cgh99915@khu.ac.kr

【국제】국제캠 학생회관 옥상 무단 출입 문제가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그간 학생회관 옥상은 3,4층 출입문과 창문을 통해 무단 출입이 빈번했다. 해당 옥상에서 흡연하거나 적재물을 방치하는 등 교내 규정을 어긴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건물 옥상 무단 출입 잦아, 학생 징계도 가능/ 대학주보 1721호/2024.04.15.)

국제캠 학생지원센터는 옥상 무단출입 방지를 위해 여러 조치를 취했다. 수위실과 논의해 옥상 순찰을 강화했다. 특별한 사유 없이

는 옥상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추가로 옥상에 드나들 수 있는 출입문 옆 창문에 방범창을 설치했다.

방학 동안에도 학생회관 수위실은 옥상을 주 3회 순찰했다. 수위실 관리소장은 “무단출입이 잦았던 학기 초에 비해 옥상 출입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옥상 무단 폐기물은 정리되지 않아 여전히 잔존한다”고 말했다.

이어 “폐기물이 옥상 빗물 배수구를 막고 있어 건물 관리에도 곤란하다”고 전했다.

옥상 폐기물은 각 동아리에서 나온 쓰레기와 과거 옥상에 있었던 창고를 허물고 난 뒤 남은 잔해

등이 모인 것이다. 학생지원센터는 “외부 업체에 의뢰해 신속하게 폐기물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캠 학생지원센터 김효수 센터장은 “출입문에 공지문을 게시해도 무단출입을 막기 어려웠지만 출입문 옆 창문에 방범창을 설치한 후에는 옥상 무단출입 사례가 거의 없어졌다”고 말했다.

옥상에 무단출입하는 학생은 경희대학교 학생 상벌 규정(제60조, 제70조)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김 센터장은 “재발 방지에는 징계보다 대화가 적합하다고 생각한다”며 “징계보다는 대화를 통한 지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도전~! 나도 경희싱어

〈프로그램 소개〉

음악대학 2024학년도 2학기 캡스톤디자인(성악) 수업에서는 성악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마땅한 배움터를 찾지 못했거나, 평소 성악에 대한 열정이 남달라 뜻을 같이하는 이들과 함께 배우고 무대에서의 연주 기회를 기대했던 경희인을 대상으로, 【도전~! 나도 경희싱어】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성악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실기능력 향상을 기대하는 경희구성원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 프로그램명 : “도전~! 나도 경희싱어”

■ 운영기간 : 2024년 9월 ~ 12월

■ 수업방식 : 주 1회 실기 진행

– 매주 목요일 13시~15시 (지원자 의견 수렴 후 수요일 또는 금요일 17시 30분으로 변경 가능)

– 캡스톤디자인(성악) 이아경 지도교수와 성악과 재학생이 실기 지도

– 연말(12월) 성악과 학생과 함께 연주회 개최 예정

■ 지원자격 : 경희 구성원 중 성악에 대한 열정이 높고, 성악 연주 실력의 향상을 희망하는 자

■ 지원방법

– 이메일로 간단한 자유 양식의 자기소개(본인 소개, 지원동기, 연락처 등)

– 영상 첨부(한국가곡이나 외국 가곡 1~2곡)

– 이메일 주소 : tamopera@khu.ac.kr

■ 모집 인원 : 10명 내외- 지원자가 많을 경우,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영상 자료를 통한 적합자 선발

■ 신청 기간 : 2024.08.14.(수) ~ 2024.08.27.(화) 17시

